



한국 '가시밭' 베트남 '꽃길' 4강서 만날까

김학범호, 조 2위로 16강 진출

이란·우즈벡 등 난적 상대

베트남 박항서호, 조 1위로 진출

한수 아래 바레인과 8강 다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 나선 두 한국인 지도자의 토너먼트 운명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우승후보' 한국은 스스로 가시밭길에 들어섰고, 조별리그 통과가 목표라던 베트남은 궤조의 3연승으로 '꽃길'에 올라섰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

하루팻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키르기스스탄에 1-0 신승을 거뒀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실추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제대로 살렸다.

손흥민은 태극전사 주장으로 선발 출전해 후반 18분 기막힌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결승골을 꽂아 한국의 1-0 승리를 이끌며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말레이시아와 2승1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승자승 원칙에 밀려 조 2위가 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프리미어리그 스타' 손흥민을 비롯해 유럽파 선수와 K리그 선수까지 총망라해 대표팀을 꾸렸다.

1차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6-0 대승을 거둘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지만 말레이시아와 2차전에서 1-2로 패하고, 키르기스스탄과 3차전에서도 상대 밀집 전술을 제대로 뚫지 못해 허우적대다 손흥민의

극적인 득점으로 힘겹게 체면을 유지했다.

조 2위가 되면서 한국은 토너먼트에서 이란, 우즈벡 등 우승후보들과 차례로 만나야 하는 힘든 길을 가게 됐다.

반면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은 조별리그 D조에서 예상 밖 선전을 펼치면서 3승으로 16강에 진입했다. 최종전에서 우승후보 일본까지 1-0으로 물리쳤다.

조별리그 전승은 25개 참가국 가운데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3개국밖에 없다.

베트남은 조 1위를 차지하면서 토너먼트 상대가 다소 쉬워졌다. 베트남은 16강에서 E조 3위를 차지한 바레인을 만난다.

바레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5골을 넣고 무려 10골을 내줬다. 조별리그에서 무실점에 6골(경기당 2골)을 뽑아낸 베트남이 한 수 위로 좁힌다.

베트남이 바레인을 꺾으면 팔레스타인-시리아



한국 김학범 감독



베트남 박항서 감독

16강전 승자와 대결한다. 누가 올라와도 베트남으로는 해볼 만한 상대다.

한국과 베트남이 차례로 16강과 8강을 통과하면 결승 진출의 문턱인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이렇게 되면 K리그 사령탑으로서도 선후배 사인인 박항서(59) 감독과 김학범(58) 감독의 지략 대결이 펼쳐진다.

박 감독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태극전사를 이끌고 준결승에서 이란과 0-0으로 비긴 뒤 승부

차지에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 동메달로 대회를 마친 경험이 있다.

16년 만에 태극전사가 아닌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박항서 매직'에 도전하는 셈이다.

김 감독은 이번이 대표팀을 지휘하는 게 처음이지만 K리그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지략가로도 명성이 높아 박 감독과 펼칠 '한국인 지도자' 맞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볼꽃 숲 받아라~"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 세팍타크로 경기장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세팍타크로 여자 팀 레구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박선주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종합

사격 '올림픽 3연패' 진종오 金 다시 좌절 양궁 장혜진 3관왕 도전...女 농구 8강행

'사격 황제' 진종오(39·kt)의 아시안게임 개인전 정상의 꿈이 무산됐다. 한국 여자 양궁 간판 장혜진(31·LH)은 3관왕 도전에 나선다.

진종오는 21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78.4점을 쏘면서 결선 진출 8명 가운데 5위에 머물렀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584점으로 2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표적지 이상 등의 불운이 겹치면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첫 5발에서 49.6점을 쏴며 5위로 시작한 진종오는 이후 10발까지 99.6점을 만들면서 3위로 올라섰다. 이후 2발씩 진행된 엘리미네이션 라운드를 10.5로 시작했지만 이후 중량을 뚫지 못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었다. 18발까지 우자위(중국)와 178.4점으로 동률을 이룬 진종오는 슈트오프에서 패하면서 금메달 도전을 멈췄다.

'올림픽 3연패'에 빛나는 진종오는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 개인전 우승도 이뤘지만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단체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진종오는 마지막을 예고했던 이번 대회에서도 끝내 개인전 금메달을 품지 못했다.

양궁 장혜진은 리커브 예선 라운드에서 677점(70mX72발)을 기록하면서 강채영(22·경희대·681점), 이은경(21·순천시청·680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종목별 엔트리 선정을 위한 대표팀 내부 선발전 배점 10점을 더한 장혜진은 총점 54점으로 여자팀 4명 중 1위 자리를 지키며,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혼성전까지 모두 나설 수 있게 됐다.

2016 리우 올림픽 2관왕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장혜진은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 메달을 얻지 못했다. 장혜진은 첫 아시안게임이었던 2014 인천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이뤘지만, 개인전에서는 정다소미와의 집안싸움에서 밀리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배구 여제' 김연경(30·액자시바시)을 앞세운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카자흐스탄을 꺾고 세트스코어 3-1로 2연승을 달렸다.

한국은 23일 오후 6시 30분 세계 1위 중국과 사실상 B조 1위 결승전을 펼친다.

한편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은 X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카자흐스탄을 85-57로 대파하고 8강 진출을 확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선수들 금메달 도전

'육상 400m' 조선태 모일환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모일환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육상 400m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한다.



모일환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40분(한국시간) 켈라라 봉 카르노 주경기장에서 400m 예선에 출전한 후, 27일은 400m 혼성계주, 29일 400m 계주에 출전할 예정이다.

모일환은 광주체육고 재학 중이던 2015년부터 광주 스포츠과학센터의 밀착지원 대상으로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왔다. 철저한 관리 속에 모일환은 2017년 제 4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400m 금메달,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고등부 400m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2018년 조선대 체육학과에 입학한 모일환은 2018년 제47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경기에서 주 종목인 400m와 2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 남자 육상의 기대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모 선수 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한국 육상 간판인 김국영과 정해림, 김덕현, 노승석 코치, 박태경 플레잉 코치(이상 광주시청) 등 5명의 조선대 출신 선수와 코치가 함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이클' 나주출신 나아름

나주출신의 한국 도로사이클의 간판 나아름(28·상주시청)이 인도네시아에서 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나주다시중학교 시절 본격적으로 페달을 밟은 나아름은 전남남양고와 나주시청을 거쳐 한국 사이클의 간판으로 성장한 선수다.

나아름은 오는 22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수방 지역 도로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개인도로에 출전한다. 24일에는 역시 수방 도로에서 열리는 여자 도로독주에 출전한다.

개인도로는 모든 참가자가 한 번에 출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사이클 마라톤'이다. 도로독주는 90초 간격으로 한 명씩 출발해 가장 짧은 시간 내 구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외로운 질주'다.

나아름은 개인도로, 도로독주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내왔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도로독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왕좌 유지'를 위해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도 육성을 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나아름은 2016년과 201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도로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수확했다.

/연합뉴스